

32개국 태권도 선수들 한자리에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31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

무주 태권도원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가 오는 31일까지 4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가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TPF)과 대한태권도협회(KTA), 무주군이 공동 주관하며, 32개국에서 3백여 명의 선수를 비롯해 심판과 지도자 등 5백여 명이 참가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박태준(-58kg, 한국), 김유진(-57kg, 한국), 피라스 카투시(-80kg, 튀니지), 엘시아 라우린(+67kg, 프랑스) 선수 등 세계랭킹 1위 선수 4명이 출전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는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남녀 체급별 겨루기로 진행되며 28일

에는 여자 -49kg, 남자 -80kg 경기가 치러졌으며 29일에는 여자 +68kg, 남자 -68kg 경기가 펼쳐진다. 30일에는 여자 -67kg, 남자 -58kg, 31일에는 여자 -57kg, 남자 +80kg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며, 체급별 1~3위 입상자에게는 오는 2026년 9월 무주에서 개최되는 G-6등급 ‘무주 태권도원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이 주어진다.

30일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황인홍 무주군수,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 30분부

터 시상식 및 환영 만찬이 마련될 예정이다며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특별 공연도 펼쳐진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등용문이기도 했던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세계적인 선수들이 무주에서 머물며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회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랑프리 챌린지 국제대회는 올림픽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신인선수 발굴 등 태권도 대중화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지난 2021년 신설했으며 2022년 첫 대회 때부터 매년 태권도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양대체전 상징물 공모

엠블럼(대회마크)·마스코트·포스터·슬로건 4개 부문

진안군은 2026년 진안에서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양대체전(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대회마크(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등 4개 부문으로 부문별 당선작 및 가작 총 8 점을 선정해 7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

될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과 도전의 축제’를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의 슬로건, 비전 등을 균형 있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특히 마스코트 부문에서는 진안군 대표 캐릭터인 ‘빠망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대회 마크(엠블럼), 마

스코트, 포스터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슬로건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진안군 문화체육과 도민체전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도민체전은 진안군 창군 이래 처음 개최되어 뜻깊은 대회인만큼 전국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무주군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생을 모집, 1인당 1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자부담 50만 원)한다.

대상은 농지대장, 또는 경영체등록확인서 기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내 거주 농업인, 운전 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 드론을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이다.

선정된 교육생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업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정보화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론교육 1주 차에는 이론과 모의비행 요령, 반딧불 드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실기 2주 차에는 기본 비행, 실기 3주 차에는 종합 숙달 비행 교육이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3D 홀로그램 활용 흡연예방 교육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영화에서 보던 3D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흡연 예방 교육에 나섰다.

군 보건의료원은 장계중학교와 장수 초등학교에서 관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3D 홀로그램 흡연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홀로그램 흡연예방 교육이란 공연장 전면에 놓인 특수 제작된 투병스크린에 3D 영상을 투영하는 영상기법으로 영화에서나 보던 CG의 느낌을 살려 교육효과를 높이는 신개념 강의방식이다.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흥미롭고 실감나는 영상으로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 중독의 위험성을 강하게 전달했고 담배는 절대 배워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한편



의 영화처럼 만들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담배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내용 △담배 유해성분과 전자담배 위험성 소개 △참여형 금연 선언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학생들은 실감 나는 영상과 공연을 통해 담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폭염·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

장수군, 관계부서 회의 갖고 대응계획 점검·협조방안 논의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이정우 부군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폭염·호우·태풍 등 재난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행정복지국장 및 관계 부서장장 읍·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 부군수는 관련 부서와 읍·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복합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야영장·캠서 등 휴양시설, 산사태 취약지와 하천·저수지, 임시거주시설 등 재난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 방안 △주인 대피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대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 부군수는 장마의 이른 종료 이후 지속되는 극심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기상 여건 속에서 각 읍·면사무소가 재난 대응의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 대응능력을 강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수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민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장수 부군수는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기 예찰과 상황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와 읍·면사무소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최선

진안군은 생활용수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체계적인 상수도 행정을 펼쳐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수도 사용을 거부했던 일부 고지대 거주민, 기존 지하수 사용 세대 등에서도 상수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이용률은 점차 오르고 있다.

이는 군에서 주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조치를 이어간 결과이기도 하다.

진안군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인건비·자재비·제경비용을 반영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시행해 단독

주택 거주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3년 약 350세대 △2024년 약 290세대 △올해 현재 120여 세대에서 신규 급수공사가 이뤄지는 등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얼마전 마령면 강정리의 3세대는 수도물 수입이 약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군에서 현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급수관로 방향을 전환하고 연장 535m의 신규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즉시 시행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 농관원, 반딧불축제 앞두고 원산지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사무소(사무소장 주순호, 이하 무주 농관원)는 오는 9월 6일부터 열리는 무주 반딧불축제를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9월 1일부터 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반딧불축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농산물을 무주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위한 부진지표 점검

진안군은 지난 27일 부군수실에서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부군수 주재의 부진지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합동 평가 정량 지표 총 65개 중 7월 말 기준 달성률 60% 미만인 20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소장 및 지표담당 과장, 팀장 등이 참석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적 달성 가능 여부와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영환 부군수는 “실적 달성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부서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량지표 뿐 아니라 평가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노력도 지표에서도 꼼꼼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